

# 절대 진리와 영혼 사랑 - 요한일서

이사야 53:1-6, 요한일서 4:1-8

정윤돈 목사님

## 요약

서론 : 요한일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

1.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 : 영지주의·가현설 등의 이단에 대한 반박, 교회 안에서 사랑 강조

2. 요한일서에서 깨달아야 할 것

(1)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

(2) 교회를 무너뜨리는 다툼을 이기고 사랑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결론 : 요한이 체험한 복음을 체험할 때 요한과 같은 진리와 사랑의 서적이 될 것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주님께 영광드리도록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소중한 사역을 위해, 복음 전파하는 사역과, 상처입은 자들을 어루만지며, 낙약한 자를 도우며, 쓰러진 자를 세우는 일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와, 경제와 인격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 서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서론 : 요한일서의 배경과 저자

오늘은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한다. 요한일서는 AD 85~95년 사이에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그때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친위대장이었다.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는 여러 분이 잘 모른다.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10명의 황제 이름은 잘 알지만, 박해를 안 했던 황제의 이름은 잘 모르니까. 그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렇게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베스파시아누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이 유명한 티투스 황제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켜서, 100만 이상의 유대인을 죽이고 수십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밧모섬에서 기록했지 않나? 요한을 밧모섬에 유배시킨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형 티투스는 그렇지 않았는데,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컸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테우스, *θεος*)이라 부르고, 주님(키리오스, *κυριος*)이라 부르라고 했다.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당연히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을 유배시킨 것이다. 이 시기에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다.

이 성경들을 이해하려면,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인물이었다. 어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형의 이름은 야고보인데, 형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성격이 다혈질이었다. 요한일서삼서를 보면, 전반부에서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복음을 지키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를 사랑의 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성격과 상황을 복음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요한은 사랑과 별로 관계가 없다. 성질도 다혈질이었다. 형과 함께 찾아가서, 주님께 청탁을 한다. 열두 제자 중 나이도 가장 어리다. “예수님,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저와 형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명이 기분이 어땠겠나? 좋을 리가 없다. 조금 있다 보면 그 어머니가 와서 이 부탁을 또 예수님께 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성격이 원만하거나 훌륭한 게 아니다. 그 요한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책을 기록했다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 나누어야 하겠다.

### 1.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

(1) 요한일서삼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로 당시에 많았던 가현설,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 내용과 반박 내용이 요한일서 4장에 많이 들어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면서 요일4:1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벌써 세상에 있다고 했다. 이단의 영, 이단 단체들이 2천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우리는 정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기독교 세계사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 기독교가 진행되다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나타났다.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으로 교회가 가게 된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가 버렸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천 년 동안이나 복음이 사라져 버렸다. 루터가 나와서 성경적 진리를 찾아내는데, 그때까지 천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던 이단이 나왔을 때는 기독교가 복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서서히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자기도 모

르게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지금 한국교회도 서서히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은가? 나는 성경을 조금 읽다가, ‘야, 저 성경을 정말 더 연구해야 되겠다’ 할 때가 있었다. 여호와와의 증인과 말다툼을 한 후다. (웃음) 여호와와의 증인과 싸워 보니까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다. 오히려 이단들이 있었을 때는 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신천지를 주시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WCC의 분위기를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천지, 여호와와의 증인 같이 확실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다원주의, WCC다. 기독교인들이 복음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화평하자,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하게 되는 것이다. 최덕성 교수님이 WCC에 작년에 참석해 보았는데, 이분이 복음을 가진 석학이면서 전도하는 분이다. 외국인들을 만나서 물어봤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교단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못 들은 교단이라, 무엇을 믿느냐 하고 물어봤다고 한다. 자기는 500개 정도 교회가 있는 교단의 대표인데, 이 교단은 ‘어떤 신을 믿어도 좋다, 누구든지 와서 믿어라’ 하는 교단이라는 것이다. 화란자유대학 같은 신학대학은 아주 보수적인 신학대학이다. 그 네덜란드의 교회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네덜란드 국가 홈페이지에 무슬림 사일 안내가 들어가 있게 되었다. 무슬림화되어가고 있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평화, 자유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버린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문제가 가장 좋게도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확실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 가정,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오늘 이 근본 복음을 가지고 회복하여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 바란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그 당시의 이단과의 싸움이었다. 근본적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요한일이삼서를 들을 때,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말씀이 줄 알았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었다. 요한이 원래 다혈질이었다고 했지 않나. ‘복음을 걸고 진리를 지켜라.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이단보다 사랑하지 않는 너희가 더 큰 이단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런 이야기였다. 여러분,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너 같은 신자 때문에 이단을 못 막는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겠느냐.” 이 이야기다. 영지주의의 문제는, 영적인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많은 신들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저급하고 타락한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주만물을 창조했다고 한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급한 신이 된다. 기독교 영지주의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 같지 않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육은 인간의 육과 같지 않다고 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육은 최고의 영성을 가진 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도 부활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영지주의다. 그러면 영이 소중하고 육은 더러운우,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타락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멋대로 살면서 즐거고 된다고 했다. 육은 저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담배를 피우면 더러운 육을 죽이는 것이 되지 않나. 어떤 분에게 담배 끊으라고 했더니, ‘담배가 나쁜 것이니까 빨리 피워서 없애 버려야 한다고 하더라. (웃음) 절대 담배는 안 끊어지고 육만 망가진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5:23).’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었다. 여러분, ‘육적인 범죄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사소한 육적인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 담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담배를 몇 갑까지 피우는 것이 죄가 아니게 될까? 도둑질을 한다면 얼마부터가 도둑질이고, 얼마까지가 죄가 아닌 것이 될까? 거짓말을 하려면 마디까지 해도 될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거룩성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우리는 완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하는 것과, ‘이 정도도 해서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거짓말쯤이야,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한 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1원도 횡령하지 말고, 사소한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짓지 않는,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란다. 한 잔 안 해도 대화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웃음) 술을 먹는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술에서 행복을 찾는다. 술을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주(酒)를 사랑하는 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요일2:16은 말씀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했다. 타협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2)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라고 간곡히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사이가 안 좋고, 부부와 싸우고, 성도와 싸우고, 선교사님 절대 후원 안 하면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회복해야 한다. 성도들과 별로

친하지 않고, 적당히 미워하면서 잘 지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 내 몸값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가라. 그렇게 헌신하라.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그들을 먼 발치에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찾아라. 그런 참된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한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실천하지 않고 예배생활을 잘 하고 있다. 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주일성수를 잘 하고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이것이다. 어떤 친구가 카톡 상태명에 '모두 다 사랑하자' 써놨길래 충고했다. "야, 그거 모든 여자를 사랑하겠다는 말이지?" (웃음) 그런 악한, 음란한 사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나는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몇 가지를 느꼈다.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단과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이 좋았다. 그런데 20년, 30년 읽으니까 나에게 부담이 오기 시작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계속 읽다 보니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야, 너희가 예수님을 대충 알지 말고,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라. 영지주의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당당히 맞서서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성도들을 포용하고 사랑해라." 신앙생활의 방향을 새로 잡게 되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요한일서삼서를 한 번 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어라. 이 과정을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설명을 하는가? 요한일서삼서를 잘못 이해하면 부담이 굉장히 되겠다. '어, 나는 잘못하고 있는데, 사랑 안 하고 있는데, 사랑 안 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데, 나도 지옥 가야겠네?' 여러분, 이단 되는 이유는 국어공부를 못 해서이다. (웃음) 손이 범죠히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하는 말은, 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믿음이 더 큰 것인가, 아는 것이 더 큰 것인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바로 아는 게 중요하더라. "나는 아내를 믿어요,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어느 게 더 낫나. 여러분, 믿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 깊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한다.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 드렸으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지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충 사랑이 아니라 완전 사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요일:9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못하면 바로 반성하고 회개해서,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믿느냐' 하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엘리야, 엘리사는 요단을 갈랐는데, 나도 한 번 한강에 가서 갈라야 합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엘리야, 엘리사보다 무능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비를 멈추게 하고 오게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자람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주셨다. "야, 너는 더 큰 일을 했어. 엘리야 엘리사는 병거를 타고 올라갔지만 자가용은 못 탔어. (웃음) 요단 갈라줘야 뒤에 쓰나. 다시 합쳐졌는데, 너는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대와 나라를 바꾸시는 것이다. 나는 신비주의를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집에 와서 항상 예언을 하고 가시는 전도사님이 있었다. 축집계 전도사님이다. 이분이 작은 누님에게 원서를 서울대에 넣으라고 했다. 우리 작은 누님이 공부를 나름대로 잘 했어도, "에이, 저는 성격이 그정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넣었는데, 그때 81학번이 역사에 남는 때였다. 대부분 학과가 미달이었다. (웃음) 나는 그때 느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법도, 제도도 바꾸신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수지맞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개 이상의 교회를 짓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주일학교 왔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요한일서에서 깨달아야 할 것

(1) 절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 요일:1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잘못된 신앙을 향해서 도전하라는 말이다. 잘못된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력으로 도전해서 절대 진리를 사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으로 와야 했는가? 사53:5-6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이 화복제물로 오셨는데, 그 제물을 홀로그램으로 드린만 바른 제사가 되겠는가.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나? 없다.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사귀어 있기 때문이다. 이단들을 원수로 대하면 안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한다. 그런데 이단 사상을 품고 있으면 사귀어 안 된다. 요일:3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고 사귀어 이를 수 있으니, 잘못된 이단 사상에서 빠져나와라, 함께 하자, 구원받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요일:2:22에도, "거짓말하

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도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가 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요일:2:27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신천지 가 보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가 봐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요일:2:27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지만, 사실은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말씀과 훈련으로 인도하셔서 직접 은혜를 주신 것이다. 어찌 부모라 해서 자식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삼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5:1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요일:5:20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자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결국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요일:5:5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정치인인, 군인이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진정한 축복,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2)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고 있다. 요한은 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했겠는가?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한이 어느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는가? 요일:11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지옥 같 어둠이라는 말이다. 요일:3:10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일:3:14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닌가. 요일:3:15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품이 다혈질인 요한이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가? 아니다. 이 정도로 강한 중심을 가졌을 때 조금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

## 결론 : 요한이 체험한 복음을 우리도 체험해야

결론을 내린다.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린다. 요한이 어떤 체험을 했기에 이렇게 복음을 체험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겠는가? 중국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리 피곤하지도 않은데 졸랐다고 한다. 잠깐 졸랐던 것 같은데 눈을 떠 보니 오후 6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럴 수가 있겠나. 그래서 놀라서 나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오전 10시 30분에 공안들이 들어닥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조사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은 자고 있었던 것이다. 성도들이, '저 노인 분은 감기몸살이 심해서 지금 누워있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 해서 공안들이 넘어갔다고 한다. 만약 이 선교사님이 조사를 받았으면, 한국인 아닌가. 바로 추방당할 수 있었다. 성도들이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요한은 다른 열한 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할 때도 끝까지 살아남았다. 거기에서 뭘 체험했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거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거나.'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아 보라. 이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 어떻게 미워하고, 참지 못할 수 있었겠는가. 이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진리의 서밋, 거룩의 서밋, 사랑의 서밋, 교회를 지키는 서밋, 계시의 서밋이 되었다. 천국까지 바라보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담을 허물, 전도와 선교를 균형있게, 봉사과 사랑을 균형있게, 신앙생활과 사랑의 실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